

 <b>해양수산부</b>	<b>보 도 자 료</b>		 
	<b>배포 일시</b>	<b>2021. 10. 22.(금)</b> <b>총 4매(본문 2, 참고 2)</b>	
<b>담당 부서</b>	<b>해양정책과</b>	<b>담당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김용태, 사무관 류선희, 주무관 김미정</li> <li>• ☎ (044)200-5229, 5228</li> </ul>
	<b>국립해양박물관</b>	<b>담당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기획팀 팀장 김윤아</li> <li>• ☎ (051)309-1851</li> </ul>
<b>보 도 일 시</b>		<b>2021년 10월 2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b>※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b>	

## 내가 버린 쓰레기가 북극에서 발견된다면?

### - 해수부·국립해양박물관, '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 사진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태만)은 해양쓰레기가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0월 26일(화)부터 11월 14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해양박물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전시는 '노르웨이의 해양쓰레기', '한반도 주변의 해양 플라스틱 연구',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연구'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며, 부대행사로 '북극 해양쓰레기의 원천과 분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노르웨이의 해양쓰레기' 섹션에서는 노르웨이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인 솔트(SALT)가 노르웨이 주변 그린란드 해와 바렌츠 해 등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구하면서 포착한 각종 해양쓰레기와 생태계 사진들이 전시된다.

'한반도 주변의 해양 플라스틱 연구' 섹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남해에서 채집한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 스티로폼 표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는 과정 등 미세플라스틱 연구자료와 사진이 공개된다.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연구’ 섹션에서는 극지연구소, 인천대 등 극지 연구자들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탐사하며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연구활동 모습과 미세플라스틱 분석 결과, 해양으로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이 북극해로 유입되는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극지 관련 연구자료를 전시된다.

한편, 전시 전날인 25일 16시에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사회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극지해양 관련 연구자들이 북극의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통해 발표자들과 양국의 학생 간 좌담회(round table talk)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북극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양 쓰레기로 인해 북극 생태계 또한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때로는 뉴스 기사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파급력이 클 때가 있는데, 앞으로도 국립해양박물관과 협력하여 해양분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문화와 접목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물 소독, 사전 예약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회에 방문하려면 전시 전날인 10월 25일 12시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www.knmm.or.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한국-노르웨이 공동행사

# 북극 해양쓰레기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

- 하이브리드 세미나\_ 북극 해양쓰레기의 원천과 분포  
[10월 25일 월요일]
- 해양사진전\_ 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  
[10월 26일 화요일-11월 14일 일요일]



**초청의 글**

북극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지역으로 간주되지만,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극 특유의 해양 쓰레기 발생원과 그 경로 그리고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노르웨이대사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는 해양쓰레기가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 세미나와 사진전을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관련 산업계, 정부기관, 연구소 및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함께 해양 오염이 제기하는 전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북극해의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1. 전시 및 세미나 하이브리드 오프닝**

- 일 시 2021년 10월 25일 (월) 15:00 - 15:50
- 장 소 국립 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knmm.or.kr)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언 어 한국어 및 영어

시간	프로그램
15:00 - 15:30	<b>환영사</b> - 김태만, 국립 해양박물관 관장 -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 -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 - 강종덕,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15:30 - 15:50	테이프 커팅 및 전시회 관람 (온-오프라인 동시)

**2. 하이브리드 세미나**

- 일 시 2021년 10월 25일 (월) 16:00 - 17:30
- 장 소 국립 해양박물관 1층 대강당 (knmm.or.kr)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언 어 한국어 및 영어

사회자\_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대사

시간	프로그램
16:00 - 16:15	북극해 미세 플라스틱 연구 - 김송규, 인천대학교
16:15 - 16:30	북극의 플라스틱 쓰레기 - 게이르 뢰기브리엘손, 노르웨이 극지연구소
16:30 - 16:50	북극 해양쓰레기 대응 국제 공동연구(GOMPLAR)와 한국의 기여 방안 - 김민수,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안네 카트레나 노르만, 노르웨이 식품수산업연구소
16:50 - 17:05	노르웨이 북극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 클라우디아 할스반드, Akvaplan
17:05 - 17:30	토론 및 질의응답 (학생 토론자: 한국 학생 2인 / 노르웨이 학생 2인)

**참여방법**

- 바로 사전등록하기 - 이름 / 소속 / 이메일 입력 **바로 참여하기**
- 이벤트 참석하기 - 발표자들에게 사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경품 타기  
(우선순위로 선택된 5분에게는 소정의 선물 증정)



Norwegian Embassy  
Seoul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N MARITIME INSTITUTE



KOPRI



국립해양박물관  
NATIONAL MARITIME MUSEUM

문의사항 | 유연경 (yky@mfa.no)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바렌츠해, 좌초된 커다란 부이 /SALT



바렌츠해, 해변의 북극여우 /SALT